

KOSEN DAY 2011 IN PARIS FRANCE



주제: 프랑스에 한인과학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코센데이 실황을 실시간으로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냅니다.

코센 데이 시작 (2011년 11월 5일, 16시 30분 시작)

최경일 박사

코센 데이 시작합니다.

코센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인터넷으로 접속 후 화면으로 띄움)

참여자들에게 코센 가입 독려

금일 코센 데이에 대한 설명과 취지

코센 데이를 통하여 회원 들과의 친목 도모 및 프랑스에서 한인 과학자로 생활 하는 것에 대한 소개 및 진로 설명 등

장소를 제공 해 주신 주OECD 한국 대표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

주제: **프랑스에 한인과학자들이 살아 가는 모습들**

참석자들에 각자에 소개 (17인)

강상욱 (OECD대표부, 과학관),

김기환 (재불과협 재무, 폴레테크닉 박사과정),

김은정 (CNRS-LAMSADE, 연구원),

김종욱 (폴리테크닉, 박사과정, 연사),

백성경 (Paris 1대학, 석사과정),

서진원 (재불과협 학술이사),

심하나 (EHESS, 석사과정),

이승호 (재불과협 건축분과 위원장, 그룹 지움 대표),

임인규 (MBA과정, HEC),

정세은 (ENS 박사과정, 문화정책 회원),

조성은 (재불과협 웹마스터),

최경일(재불과협 학술위 간사, 연사),

최성우 (르노자동차, 연사),

최유진 부회장(연사),

황태하 (폴리테크닉 석사과정),

이후, 2인 추가

연사 1 - 김종욱

한국에서 화학공학으로 학부를 졸업, 프랑스 폴리테크닉에서 1년 교환학생 후, 프랑스에서 석사과정 2년을 보냄. 이후 졸업 후 한국에서 있다가 프랑스로 다시 와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

석사과정, 에콜 상트랄 Ecole Centrale. 화학 석사 과정.

폴리테크닉 Ecole Polytechnique 에서 물리 화학 재료를 잘하는 곳을 찾아서 박사과정을 시작함.

커리어 패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프랑스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인턴쉽 경험에 대한 소개에 초점을 두는 발표.

LG화학 연구소, 삼성 종합 기술원에서 인턴쉽을 함. 석사과정 후 한국 KIST에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함.

석사과정 중 폴리테크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연구실과, Saint-Gobain이라는 회사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회사/연구소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는 것이 이후에 커리어 패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추천을 함.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고 했고, 이런 학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사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나음. 이유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물론 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방면으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개인의 욕심에서는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됨.

연사 2 - 최성우 박사

어떻게 살아 왔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발표

상주 출생, 경북 과학고 (포항 소재) 입학, 2학년 때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 이후 전자과로 학과를 정함

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소개.

어떻게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지.

대학교 4학년때 군문제를 해결한 뒤, 유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됨. 카이스트 국제 협력처에서 생고방 Saint-Gobain에서 펀드를 받아서 유학을 가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이후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학교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굳힘 (Ecole des Mines de Paris). 화상 면접을 치뤄서 합격 후, 프랑스로 입학하게 됨.

Ecole des Mines de Paris는 나폴레옹 시절 광산을 개발 하기 위하여 창설된 에꼴학교 중 하나.

2학년 편입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게 됨.

(일반적으로, 일반대학 졸업후 편입하기 위한 T.O가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T.O도 있음.)

주 전공은 일반공학, 부 전공은 로보틱스를 선택하게 됨.

프랑스의 에꼴에서는 일반 공학분야 전분야에 대한 수업과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며, 이외도 경제, 경영, 법학 (일반, 상법, 노동법)을 배움.

에꼴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잡음. 학교별로 다르지만, 규모는 대략 한 학년이 100명 정도의 규모. 대기업 CEO 중에 에꼴 데민 출신들이 꽤 많음

이후 박사 학위를 하게 됨.

인공 지능 자동차에 관한 박사 주제를 잡게 됨.

연구한 쪽으로는, 자동으로 앞차를 따라가는 시스템과 평행 주체를 자동으로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됨.

졸업 후 르노 자동차에 취직을 하게 됨. 르노 국제그룹과 계약을 하였고, 프랑스 르노에서 몇년을 일하고, 다른 나라에서 또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르노에서 일을 하게 될 계획임.

스위스에 있는 르노 닛산과 계약 후 프랑스로 파견이 나온 케이스.

요즘에, 프랑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경시청에서 체류증 서류를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함. 따라서 "르노 재단"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입사를 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음.

르노 재단은 르노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쪽으로 파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길로 계약을 하여 한국으로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하게 됨.

질문 최유진 : 빠른 길로 온 만큼 잃은 것은 없는지?

최성우 : 운동이나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 많이 시간 할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공부 말고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해본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사 3 - 최경일 박사

카이스트 졸업 후,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함. 한국에서 2년여 연구원생활을 한 뒤, 박사과정을 하게 됨. 영국 유학당시, 프랑스에서 온 초청교수가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한 것을 보고, 프랑스로 와서 박사과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음. 그 강의를 했던 교수와 접촉을 하여 장학금 알선등의 도움을 받고, 불어능력 시험을 본 후 합격이 되어서 학위를 하게 됨. CNES에서 인턴쉽을 하고 ENST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됨. 한국의 경제위기 문제를 목격하면서, 졸업 후, 진로를 영어 또는 불어권 회사를 접촉함.

프랑스 회사의 경우, 항공우주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지만, 학위 후, 프랑스 내부에서 직접 프랑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짐. 특히, 한국인들과 같이 프랑스가 국가적으로 경쟁하는 나라의 출신들이 취직을 원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의 문제가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음.

갑자기 독일에서 연락이 옴. (독일에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음.) 면접을 보기로 함.

독일에서 항공 우주업 분야 컨설턴트로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게 됨. 벨기에서 1차 면접 후, 독일가서 2차 면접을 봄.

항공 우주업 분야는 전세계에서 영어 불어를 쓰는 것임.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어로 면접을 봄).

일을 하다가, 아이 육아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됨. (현재 다니고 있는 Eutelsat에 입사를 하게 됨.)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써 면접을 봤을 때는 경시청에서 체류증 허가가 나기가 힘들었지만,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 좀 더 쉽게 진행이 됨. (프랑스 내에서 하는 것 보다 외국에서 취직되어 들어오기가 더 쉬움.)

추가 설명 : 리쿠르팅/컨설팅 전문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음. 개인이 각각 회사들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 됨.

연사 4 - 최유진 박사

전북대 졸업 후, Louis Pateur 대학에서 유체, 기계역학 박사과정 학위를 하게 됨.

바이오메카닉에 대한 학위를 한 후,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 개발)으로 일을 하게 됨.

프랑스인과 결혼 후, 프랑스에 남기로 함.

Tecticiel 이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캐나다 McGill 대학으로 건너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다시 프랑스로 다시 건너옴. 브레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함. 이후 CNRS-IPGP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함.

CNRS에 대한 설명을 함 - CNRS에 들어가는 것. CNRS에서 일을 하는 것, 등등

CNRS에 들어오는 연구원들은 프랑스 엔지니어링 스쿨 출신 학생들보다 일반대학 출신 연구원

들이 더 많이 있음. 최소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어야 Chargé de recherch  2 에 지원할 수 있음.

CNRS에서는 신규분야 (NT, BT 등)에 투자를 많이 하는 한국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함. 월급을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평생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

질문 최경일 : 학위를 어디까지 해야 CNRS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

최유진 : 박사과정 부터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포닥 과정을 마치고 온 후보자들을 더 선호.

질문 김기환 : 박사 학위 과정 이후에 프랑스에서 포닥을 하다가 가는 것보다 외국을 나갔다가 오는 것이 더 중요한지?

최유진 : 당연하다. 똑 같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 할 것이다. 미국에서 생활 하다가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오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일반 질문들 모음

질문 최경일 : 군대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김종욱 :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셔서, 6개월 공익을 하고 옴. 석사 1년 차 이후 공백 1년 동안 해결을 하고 옴.

질문 최경일 :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것에 비한 장점과 단점

김종욱 :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하지만 연구 속도가 느다. 한국이 엄청 빠르긴 하지만,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일반적인 프랑스 연구소와 한국 연구소 생활에서의 차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새로운 빠리 거주자 소개:

김은정 - 영국 박사. 몽뵈리에에서 포닥을 하던 중 빠리의 CNRS에서 CR2 위치로 계약됨. 전산전공. 이 미 코센 회원

신하나 - 과학 기술 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음. 석사. 신입 코센 회원

모임 후기

모여서 회의만 하고 갈 수 있나요?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코센이 지원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즐거운 저녁식사와 함께 교류하고 대화하는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습니다.

